

바스크語의 助動詞 活用에 있어서 零形態 增殖에 關한 假說

노 형 남
고려대, 서어학

1. 서론

이 연구는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어와 傍屬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특이한 복합 구성을 보이는 바스크어의 조동사 활용에 있어서 어디엔가는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隱在的인 零형태소의 존재를 假定하면서, 바스크어의 融合적인 성격을 대변하여 주는 그 영형태소의 增殖 현상을 바스크어의 조동사 연구에 필수적인 하나의 가설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當爲性을 立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스크어의 조동사 형태는 다양한 형태론 및 통사론 범주와 서로 순서에 맞게 연 관되어진 여러 가지 形成素로 조합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성소는 izan이나 ukan 과 같은 조동사의 어간 주위에 접사로서 첨가된다. 이것을 분석할 때에 바스크어는 능격 언어인 점을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절대격 및 여격을 포함한 보조 형태에 동반되는 격 명칭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일부로서 부여되어야 한다.

本是 바스크어의 보조 체계는 초심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만큼 복잡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조 순서도 일 천 가지는 족히 넘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¹⁾ 그

-
- 1) 여기에서 사용한 순서는 런던 학파의 언어의 언어학에서 서열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순서는 두가지 이상의 항목에 관하여 시간 (또는 인쇄된 텍스트)이라는 선형적인 일차원의 세계의 있어서 앞 뒤 전후 관계가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서열과 비교하여 보면 보다 더 표면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서열이라는 것은 주로 추상적인 구조에 관계하고 두가지 항목 사이의 의존관계나 구성 성분의 관계를 지정한 다. 예를 들어, 수식어 M과 피수식어 H와의 관계는 두가지 중에서 그 어느 것이 앞에 놓이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순서는 MH이거나 HM이더라도 서열은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보조 순서에 관한 자료는 Universidad de Navarra의 문과대학 부학장 Ana Echaide의 부친인 Ignacio M. Echaide(1994)를 참조하였다.

리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바스크어의 본동사와 조동사의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① Nor 형인 naiz(나는 ~이다)는 절대격으로 유표된 인칭을 포함한다.
- ② Nor-Nori 형인 natzaio(나는 그에게 ~이다)는 절대격과 여격으로 유표된 두 가지 인칭을 포함한다.
- ③ Nor-Nork 형으로는 nauzue(당신들이 나를 ~한다)에서와 같이 절대격과 능격으로 격 유표된 두 가지 인칭을 내포한다.
- ④ Nor-Nori-Nork형으로서 diozue(당신들이 그를 위하여/그에게 그것을 ~한다)는 절대격-여격-능격으로 격 유표된 세 가지 인칭을 포함한다.²⁾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바스크어의 현저한 특성으로서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2항 관계에 非대칭성이 없는 자유로운 어순의 언어이면서 문장 내에 명시적으로 표현된 명사구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代用的 代名詞類 탈락의 非形狀 언어라는 것을 손꼽는다.

그렇다면, 바스크어에서 융합적인 어휘를 형성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단순히 계속 발생하는 단편으로 끊어 가는 분절화가 아니라, 어휘 연속체를 동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특성의 층으로 나누어 일반화시킨 법칙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점에 착안하게 된다.

한편, 더 나아가서 것처럼 어휘 항목의 의미를 어휘 內項 안에 들어 있는 의미 표지와 변별소를 사용하여 분해하는 일반화된 어휘 해체의 규칙을 바스크어 조동사의 형태를 추론하는 과정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론의 탐구가 한낱 공상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바스크어 조동사의 활용에 있어서 영형태의 증식 현상을 하나의 연구 가설로 설정함이 당위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려고 한다.

I. M. Echaide (1944) *Desarrollo de las Conjugaciones Euskaras: Perifrásticas y Sintéticas/ Respetuosas y Familiares*, Donostia: Grafico.

2) Nor형 naiz (나는 ~이다) (n-aiz: n-, 1p. sg. ABS)

Nor-Nork형 nauzue (나는 그에게/그를 위하여 ~이다)

(n-atzai-o: n-, 1p. sg. ABS; -o, 3p. sg. DAT)

Nor-Nork 형 nauzue (당신들이 나를 ~한다)

(n-au-zue: n-, 1p. sg. ABS; -zue, 2p. pl. ERG)

Nor-Nori-Nork 형 diozue (당신들이 그것을 그에게/ 그를 위하여 ~한다)

(d-i-o-zue: d-, 3p. ABS; -o-, 3p. sg. DAT; -zue, 2p. pl. ERG)

2. 영형태 가설 설정

바스크어 조동사의 형태소 분석에 零형태를 도입하는 연구 방식은 자칫하면 공연한 복잡성만 더하여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³⁾ 두 가지 낱말이 합쳐져서 하나로 된 혼성어의 중첩 형태처럼, 두 가지 형태소 또는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수많은 형태소에 속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지만,⁴⁾ 동사의 기본 어기로 간주되는 다양한 형태소의 고립 현상에 따라 남겨진 분절음이, 본동사에 의하여 요구되는 논항의 유형을 결정짓는 기능을 가진 형태도 충분히 상정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중첩 형태 d-u-t의 d-와 같은 형태가 있다. 이것은 문장의 논항 기능을 가리키는 분절음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는 단지 논항의 수로써만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공시적으로 볼 때에 앞에서 언급한 분절음이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아니한다.⁵⁾ 그러므로, 의견상 이해하기 용이하면서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도식화하려는 목적에서만 영형태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경향은 역시 무리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양자택일 논리에서 어떤 선택을 제안하여 보자는 것이 이 논문의 의도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가설의 수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믿을 만한 근거와의 결합성 여부와, 분석 방식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증거의 유무 판단에 연구의 목적을 두게 될 때에 빚어지는 결과로서의 형태로부터 명백한 자료를 도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 제기에, 이렇다 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의문점이 공시적 언어 기술에 접근하는 방식의 관계로도 소급되기 때문에 연구 방식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공시 기술을 선택하는 결정에 수반되는 자료의 역할이라든가, 체계 내의 부적합한 자료에 대한 설

3) M. Harris & P. Ramat (1978) *Historical Development of Auxiliaries*, Berlin: New York: Amsterdam: Mouton de Gruyter, p.332.

S. R. Anderson(1992) *A-Morphous Morp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51-4.

4) *ibid.*, pp.54-5

5) C. H. Hockett (1947) "Problems in Morphemic Analysis" in M. Joos(ed.) (1957), pp.236-37

M. Joos (ed.) (1957) *Readings in Linguistics* I,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명의 근거로 제시되는 정도 여부의 의문과 아울러서, 다양한 형태소 생성 단계에 상응하는 가설과, 별개의 어휘 형성 단계를 분석하는 기초의 긴밀성 유무 문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3. 바스크어의 동사 체계

전통적인 분석 방식에 의할 것 같으면, 보조 형태는 본동사와 조동사의 두 가지 상이한 범주의 구성 요소로 취급된다. 본동사로 간주하는 경우는 ukan과 izan이 각각 소유와 존재를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된다.⁶⁾ 그리고, 조동사는 相 標識를 동반하는 본동사와 조합을 이루는 보조 형태의 사용이 여러 가지 시제를 표현하는 형식을 일컫는다.⁷⁾

바스크어의 본동사는 etorri 또는 ikusi와 같은 합성 동사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ukan이나 izan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합성 본동사의 기능을 가진다.⁸⁾ 이러한 본동사의 작용에 관한 전통적인 증빙 자료는 각각 소유와 존재를 뜻하는 문장과 부정문에 의하여 제공되어졌다.

이것은 다음의 예시에서 보듯이, 종합 동사 형태의 본동사를 포함한 긍정문 (1)이 부정문 (2)로 변형될 때에 문장의 마지막 위치로부터 문장의 처음 위치 방향으로 부정 어귀인 ez를 좌측/앞에 대동하고 본동사가 이동됨으로써, 이른바 이동 규칙을 적

6) Etxe bat du. (그는 집 하나를 소유한다.) [ABS]

Gizon-a da. (그는 남자이다.) [ABS, m., sg., art.]

7) Gizon-a etorri da. (그 남자가 왔다.) [ABS, perfective]

Gizon-a etorri-ko da. (그 남자가 올 것이다.) [ABS, future]

Ni-k etxe bat ikusi dut. (나는 집 하나를 보았다.) [ERG, ABS, perf.]

Ni-k etxe bat ikusi-ko dut. (나는 집 하나를 볼 것이다.) [ditto, fut.]

한편, 본동사로 기능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보조 형태인 da나 dut와 조합을 이룬 형식으로써 서로 다른 시제를 표현한다.

Gizon-a izan da. (그가 그 남자이었다.) [ABS, perf.]

Gizon-a izan-go da. (그가 그 남자일 것이다.) [ABS, fut]

Ni-k etxe bat izan dut. (나는 집 하나를 소유 하였다.) [ERG, ABS, perf]

Ni-k etxe bat izan-go dut. (나는 집 하나를 소유할 것이다.) [ditto, fut.]

8) P. Lafitte (1979) *Grammaire Basque*. (third edition) [1st edition in 1944], Bayonne: Ikas, pp.262-303.

용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아낼 수 있다.

(1)

Etx	bat	d-a-kus- a - t ⁹⁾				
		d	a	kus	a	t
집	하나	ABS	[-past]	stem	X	ERG
	ABS	3p.				1p.
		sg.				sg.
		그것을	(현재)	보다		나는

“집(하나를)을 나는 본다.”

- (2) Ez d- a- kus- a -t etxe bat.
 Neg 그것을-(현재)-보다 - X -나는 집 하나
 “나는 집을 보(고 있)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역사적인 증빙 자료의 제시를 동사의 공시적인 작용을 설명하는 데에 으뜸가는 논리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여하한 경우에서도 바

9) 심층이라는 말을 문법 자체에 적용함으로써 모든 언어에 공통되는 不變異인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와 구별하기 위하여 범주화와 어휘 삽입을 포함하는 어기의 규칙이 始發 구조 표지를 형성한다고 본다. 이러한 시발 구조표지에 변형이 적용되어 표면 구조가 생성되고, 그것에 의미 해석이 적용되어 논리 형식을 산출함으로써, 痕迹 이론에 입각한 문장 문법의 통사론이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표시하기 위하여는 바스크어 조동사의 구성 성분의 부착 합성과 복합적인 융합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格子 도식을 채택한다. 이 논문에서 채택하는 격자 도식은 어휘 음운론의 격자 표시와는 다른 것으로서, α -처리 규칙을 따른다. 원리 체계가 문법 요소를 허가하는 허가 문법으로 발전되는 추세에 따라 의미역 격자를 착안함으로써, 그 허가의 근본요인은 어휘 자질에 기인한다고 보고, 어휘부 구동 문법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해석 논리의 형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범주 사이의 장벽성 개념을 고려하면서 차단 범주 개념을 원용하여, 의미역과 관계절 표시에 특히 적합한 격자 도식을 사용한다. 이 도식은 이론상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구성 성분의 결합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하며, 보편화되어 있는 수형 및 분기 도식과는 달리 단층구조에 나타나는 구성 성분의 분석 자질을 기술하는 데에도 並用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특히 관계절이나 접속절 표시에 더욱 적합하다.

스크어 사용자가 동사에 관한 분석을 일일이 신중하게 행하였느냐 하는 의문점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 성분의 어순 위치만 가지고 동사가 합성 본동사이냐 아니냐를 명백한 발생으로 판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논리로서, 예를 들어 소유를 뜻하는 문장을 미래 시제로 변형할 때에, 그 의미에 해당하는 동사인 ukan의 기본 형태에 미래를 표현하는 접미사 -ko를 부가시키면, ukan-ko가 다시 ukan-go로 음운 변화되는 경우도 상정하여 볼 수가 있다.¹⁰⁾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다음 예시 (3)에서 보듯이, 상 표지를 동반하는 요소로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非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독된다.

- (3) * Etxe bat ukan-go d- u- t.
 집 하나-ABS 소유하(다)-르 그것을-하다-나는
 *“나는 집(하나를)을 · 소유하-르 하다.”

일반적으로 바스크어의 조동사는 본동사의 우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만은 도리어 非文으로 판정된다. 실제로 言衆에 의한 언어 운용에서 보조 형태의 형태론적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izan 동사뿐이다. 따라서, 위의 예문 (3)을 문법에 맞는 적격문으로 수정하면 다음의 (4)와 같이 되므로, 相의 동반자로서 기능하는 본동사의 형식임을 알 수 있다.

- (4) Etxe bat izan-go d- u- t.
 이다-르 그것을-소유하다-나는
 “나는 집(하나를)을 소유할 것이다.”

이것은 izan 동사가 본동사로 기능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ukan은 어근에 본래의 ‘소유하다’는 뜻을 지니는 독특한 예이다. 이것에 관하여는 바스크어의 역사 기술에서 상 표지를 취하는 문장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음이 지적된 바가 있으므로,¹¹⁾ 여기에서는 詳述하지 않기로 한다.¹²⁾

10) [+nasal] → $\left[\begin{smallmatrix} \alpha & \text{high} \\ \beta & \text{grave} \end{smallmatrix} \right] / \text{---} \left[\begin{smallmatrix} \alpha & \text{high} \\ \beta & \text{grave} \end{smallmatrix} \right]$

11) J. G. Heath (1977) “Remarks on Basque Berbal Morphology” in W. A. Douglass (eds.) (1977), pp.193-201

4. 조동사의 구조 분석

구조적 특징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凡언어적 보편성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론적 측면에서 관찰할 때에 거론되는 것은 행위자와 객체의 표지, 어순, 접속 삭감 및 관계절이다.¹³⁾ 경험 자료에 바탕을 두는 관계 문법은 변형 이론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주어나 목적어 등의 문장 구성 성분의 문법적 관계에 역점을 둔다. 이러한 관계 문법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법 개념으로서 분류하여 본다면, 행위자의 표지가 자동사문의 주어 표지와 일치하고, 객체의 표지는 이것과 다른 경우를 대격 구성이라고 일컫는 반면에, 객체의 표지가 자동사문의 주어 표지와 일치하고, 행위자의 표지가 이와 상이한 바스크어는 능격 구성에 해당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능격 구성이라는 것은 자동사 구문과 타동사 구문이 동일한 동사를 공유함으로써, 통사 및 의미상의 대응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바스크어의 현저한 능력을 부각시킴으로써, 언어외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보더라도, 능격 구성이 가장 오래된 언어 유형상의 특징인 것이며, 대격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히 그것에 좇아서 어휘가 형성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바스크어의 조동사를 분석하여 내적 재구형을 추론하는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음을 영형태가 증식되는 바스크어 특유의 언어 현상을 입증하는 근거로 설명하려고 한다.¹⁴⁾

한편, 능격의 구성은 화용론적 측면에서도 범언어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화제가 문법화 되면 화제의 설명과 구성은 절 층위의 통사론으로 연결되어 행위의 객체가 화제로 문법화 된다.¹⁵⁾ 능격의 구성에서 성공적인 행동 수행의 책임을 화제로 부상된 타동사의 객체가 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언하면, 능격 구성의 객체는 행동 수행의

W. A. Douglass (des.) (1977) *Anglo-American Contributions to Basque Studies: Essays in honor of Jon Bilbao*, Reno: University of Nevada Desert Research Institute.

12) 조동사 *ukan*의 내적 재구형 도출을 시도하기 위하여 '소유하다'는 의미의 *e(d)uki* 동사를 추론 근거로 삼은 당우성을 입증하는 언어 사실로 원용한다.

13) B. J. Bake (1976) "On Ergativity and the Notion of Subject: Some Australian Cases" in *Lingua* 39, pp.281-300.

14) F. Plank (ed.) (1979) *Ergativity: Towards a Theory of Grammatical Relations*, London; New York; Toronto; Sydney; San Francisco: Academic Press, pp.14-5.

15) *ibid.*, p.15.

일차적 책임을 지는 화제로 부각된 구성 성분이다. 이러한 행동 수행의 책임 소재는, 자연 환경이 제공하는 제약 요건이 강한 수렵사회에서 행위자의 의지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요인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행위 객체와 연결되는 언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물론, 이러한 견해도 수렵사회인 아프리카에 능력의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설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인도 이란어에 능력 구성이 출현한다는 반론에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를 神이나 초인적인 능력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격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신화나 전설, 또는, 說話나 民譚 등의 신이나 위대한 인물이 부각되는 문학 배경에서는 절대로 능력 구성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¹⁶⁾ 이것을 뒷받침하여 주는 논거로서는, 바스크어로 기록된 문헌이 늦게 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¹⁷⁾ 그 문헌의 거의 대부분이 성직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점이다.¹⁸⁾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바스크어와 관련된 사회-문화 측면을 고려하면서 경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해결이 가능한 연구 주제이며, 또한 논지 이외의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 이외에도 바스크어의 구조적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한 언어가 대격을 지닌다면 수동 구성을 가지게 되지만, 능격이 두드러진 언어라면 反수동의 구성을 가진다는 일반론에 입각하여 보더라도 바스크어의 능격으로 표현된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변화되고 절대격으로 나타난 객체는 생략되어 버리든지 아니면, 주격이나 呼格 이외의 명사나 대명사의 斜格 補文 구조로 변형되는 점이다. 이 점 또

16) J. María Lacarra (1957) *Vasconia Medieval: Historia y Filología*, San Sebastián: Publicaciones del Seminario Julio de Urquijo, pp.63-4.

Y. Biobao Azkarreta (1982) "Sobre la Leyenda de Jaun Zuria, Primer Señor de Vizcaya" separata del libro *Amigos del País, Hoy (Adiskideen Elkarte, Gaur)* Tomo I, Bilbao: RSBAP, pp.237-63.

17) M. B. D Echepare (1959) *Linguae Vasconum Primitiae*. Olerkiak. in Fr. Ignacio Omaechevarria O.F.M., pp.155-69. El primer libro impreso en euskera(año 1545) *Linguae Vasconum Primitiae per Dominum Bernardum Dechepare Rectorem sanctimichaelis veteris*; Reproducción facsímil del único ejemplar que se conoce de la edición príncipe, hoy en la Biblioteca Nacional de París: con una introducción bio-bibliográfica sobre Bernat D'Echepare por Nicolás de Alzola Guerediaga, y la primera versión castellana, debida a Lino de Aquesolo Y Olivares: edición (1966) separada de *La Gran Enciclopedia Vasca*, Bilbao: Moderna.

18) I. Omaechevarria (1959) *Euskera*, Marauz: Icharopena, pp.155-69.

한,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논지의 내용을 충분히 지지하여 준다.

어떤 형태소가 문법 逸脫에 抵觸되지 않으면서 다른 요소와 동일한 문장이나 구 또는 형태소나 어휘 항목 내에 출현할 때에, 그러한 두 가지 요소는 共起 關係를 가진다. 그리고 언어 능력에 의하여 식별이 가능한 비문법적인 문장은 기층부나 변형부에 관련되는 규칙 체계의 문법으로부터 벗어나 嚴密 下位 範疇化 資質이나 선택 자질에서 離脫한 문장을 뜻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그 요소 사이에 발생하는 선택 제한이 바로 共起 제한이다. 이와 같은 공기 제한을 다음의 분석 도식 (5)와 (6)에서 보듯이, 바스크어 조동사 ukan의 어근 표현 가운데 능력과 여격의 격 표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5)

d	i	o	t
3p. sg	[+DAT]	3p. sg.	1p. sg.
ABS	marker	DAT	ERG
그것을	~에게	그(에게)	나는
“나는 그것을 그를 위하여/그에게 ~한다”			

(6)

z	en	i	da	te	n
2p. sg.	[+past]	[+DAT]	1p. sg.	pl.	[+past]
ERG		marker	DAT	ERG	
당신이	(과거에)	~에게	나(에게)	(당신)	(과거에)
“당신들이 (그것을) 나를 위하여/나에게 ~하였다”					

능력과 여격의 격 표지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에, 엄밀하게 말해서, 조동사 ukan의 어근이 결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결국에는 조동사 ukan이 izan과는 달리 형태 및 통사의 범주 표면상으로는 어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바스크어의 공기 제한 문제점은 조동사 형태의 형태론적 어원 파생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술 모형에서 어근이 나타나는 기저 층위를 설정하여 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착안을 하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 어원의 파생을 규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동사 ukan의 어근이 여격 표지인 -i- 형태소에 의하여 교체됨을 알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또, 조동사의 형태

내의 임의적인 분리 변형에 의하여 동사로부터 분리되는 성분인 添辭도 어근 주위에 분포된다고 보는 것은 조동사뿐만 아니라, 종합 동사라고 일컬어지는 본동사의 어근이 시제, 인칭, 격, 수, 敍法, 樣相類, 형식성, 성 등을 가리키는 형성소가 밀착된 어간으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바스크어의 종합 동사는 가장 보편적인 어휘로서 작은 집합을 이룬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joan(가다), ibilli(견다), etorri(오다), ekarri(가져 오다), eramam(운반하다, 휴대하다), ikusi(보다) 등이 있다. 그 반면에 분석 동사는 자체의 어휘 어근으로 하여금 거기에 부가되는 시제, 인칭, 수, 격, 서법, 양상류, 성, 형식성의 첨사를 위한 어기로 작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류의 동사에는 미래나 불완료와 같은 상의 표지가 오로지 접미사로 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대상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논지의 타당성을 부연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기로 한다. 동사 ikusi가 종합 동사 형태의 본동사로 사용되는 nakusazue의 경우인 예시 (7)을 비롯해서, 조동사의 활용형과 함께 사용되는 분석 동사의 형태인 경우에 조동사 ukan이 취하는 nauzue의 성분 분석인 예시 (8)을 서로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7)

n	a	kus	a	zue
1p. sg.	[-past]	root	X ¹⁹⁾	2p. pl.
ABS				ERG
나를	(현재)-ㄴ	보다		당신들이
“당신들이 나를 본다”				

(8)

n	a	u	zue
1p. sg.	[-past]	root	2p. pl.
ABS			ERG
나를	• (현재)-ㄴ	하다	당신들이
“당신들이 나를 ~한다”			

19) 이 부분의 X는 분석되지 아니한 분절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형성소의 실질적인 구성 단위이기도 하다. 자음끼리의 원만한 연결을 위하여 삽입된 분절음으로 판단된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는 언어 현상의 예시이기는 하지만, 위의 두 가지 비교에서 어근을 중심으로 하는 첨사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서 분석되지 아니한 분절의 존재를 바스크어 종합 동사의 활용형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수한 분절에 관한 설명은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바스크어에 있어서 보조 형태의 형태론적 어휘 파생에 입력으로 작용하는 어근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논지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다.

5. 분석상의 문제점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바스크어 동사의 형태론은 기술 언어학적으로나 통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흥미로운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여 주지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아직도 만족스러운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다. 바스크어가 철저한 동사의 일치 현상을 보이는 것은 바스크어 동사의 분석 및 내적 재구형의 도출 시도에 좋은 논거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바스크어의 조동사를 분석하고 내적 재구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될 사항을 열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분리 형태소 $-k(i)-$ 와 $-ts(i)-$ 가 간접목적어와 일치하여 동사의 핵에 존재한다.
- 2) 한정 동사가 비한정 명사구인 논항과 일치하는 조건이 있다.
- 3) 한정 형태에 있어서 3인칭과 일치하는 유표 형태에 복합적인 변이형이 나타난다.
- 4) 수동형으로써 능동의 뜻을 가지는 異態 동사를 비롯하여 오로지 간접목적어만을 지배하는 동사의 형태론에 특색이 있다.
- 5) 空白/間隙化 현상 및 使役 형성의 통사 과정상에 동사가 일치하는 효과가 있다.
- 6) 屬格(GEN)이 동사와의 일치를 위하여 절대격이나 여격으로 승격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예측되는 여러 가지 형태론 문제는 3인칭의 접두사가 그 기원 면에서 보면 시간, 양상 또는 서법의 표시이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아울러서, 이러한 표시가 결합하는 음운의 변화에 의하여 1인칭과 2인칭 형태로부터 배제되어 왔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스크어에서 주어와 동사 변화가 일치하듯이, 한정 명사구의 목적어와도 동사 변화가 일치하는 관계는 화제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에 의하여 지배되게 마련이므로, 명사구가 초점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한정 명사구와 동사가 자연스럽게 일치되지만, 초점의 밖에 있을 때에는 동사 일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순리에 맞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면 바스크어 방언의 분류에도 기여하는 바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비스카야와 기푸스코아 방언에서 비한정 명사구와 동사가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당연히 지속적인 구어체의 담화와 문어체의 문헌 분석에 기초를 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탐색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예상 밖으로 훨씬 넓은 지역에 걸쳐 확산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언어학 차원에서 논술하여 보자면, 동사와 한정 명사구의 일치 현상이 통상적으로 비한정 명사구의 경우보다는 훨씬 일찍 언어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가지만, 그러한 일치가 종종 비한정 명사구의 경우로도 확산되어 마치 하나의 유행처럼 문법의 간결화와 통일성을 지향하면서 그것의 지지 기반을 수월하게 얻어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흥미있는 일치 유형은 공백/간극화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통사 구문에 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의 예시 (9)와 같은 등위 구조 문장을 예시 (10)처럼 우측 간극화로 만들어 보면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지만, 예시 (11)과 같이 좌측 공백을 시도하여 보면 분명하게 판별될 수가 있다.

- (9) Josetxo-k sagardo-a edan d- u- $\emptyset$,
호세초-가 사과음료-를 마시(다)-었 그것을-하다-(그는)
eta ni-k ardo-a edan d- u- t.
그리고 나-는 포도주-를 마시(다)-었 그것을-하다-나는
“호세초가 사과음료를 마셨고, 나는(내가) 포도주를 마셨다.”

- (10) Josetxok sagardoa edan du, eta nik ardoa $\emptyset$ $\emptyset$.
“호세초가 사과음료를 마셨고, 나는 포도주를 (마셨다).”

- (11) Josetxo-k sagardoa $\emptyset$ $\emptyset$, eta ni-k ardoa
호세초-가 그리고 나-는
edan d- u- gu. / d- it- u- gu.

- (12) Joan d- a.
가(다)-왔 그는-이다
“그는 갔다.”
- (13) Joan-erazi d- u- t.
가(다)-(하)게 하다 그것을-하다-나는
“나는 그로 하여금 가게 하였다.”
- (14) Egin d- u- Ø.
하(다)-왔 그것을-하다-(그는)
“그는 그것을 하였다.”

자동 형태로 변모하기도 하는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부 지역의 방언에 국한하여 출현하며 공통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이 논문에서는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의미 변화가 어형 변화에 남기는 흔적이나 영향은 언어 분석의 추론 근거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가상의 영형태소인 직접목적어를 유표하는 언어 사실이 바스크어의 어휘 형성 방식 내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가설을 세우려는 이 논문의 논지 방향과도 부합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흔히 상용하는 인칭 대명사에 연관되는 접사에 의하여 바스크어 동사 변화형의 1인칭과 2인칭 단/복수가 유표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한 도표 (18)로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도표 (18)에서 주목할 사항은 단수 2인칭이 유래된 모체인 복수 2인칭을 합병시켜 略式化 한 점이다. 그러한 형태의 거의 대부분은 대명사의 어간으로부터 즉, 고대의 어간 변이형을 반영하는 단수의 접사로부터 어휘가 파생되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반면에 3인칭의 접사는 복합적인 변이형을 보여주되, 특히 3인칭의 복수 형태는 단수의 형태에다가 복수화 접사를 부가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²¹⁾ 소멸된 지시 요소로부터 d-를, zen/zan(그는 ~이었다)으로부터 유추에 의하여, 초기의 * $\emptyset$ 형태소를 대체하면서 z-를, 그리고, ahal(~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로부터는 l-을, ber-(동일한, 같은)로부터는 b-를 어휘 파생시켰다고 보았다. 친숙한 지시 어간인 (h)au, (h)ori, (h)a(r)- 형태로부터는 여격을 유표하는 형태소 -o와 -a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어형을 재구하는 문제의 핵심을 빚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식은 바스크어의 다양한 접두사의 분포가 동사의 범주인 시제나 양상 및 서법 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21) H. Schuchardt (1947) *Primitiae Linguae Vasconum. Einführung ins Baskische*, (1923) Halle(Saale). Verlag von Max Niemeyer, versión española con notas y comentarios de la original alemana por A. Yrigaray. Salamanca: Colegio Trilingüe de la Universidad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pp.3-7.

R. Lafon (1972) "Basque" in T. A. Sebeok(ed.) (1972), p.1767.

T. A. Sebeok (ed.) (1972)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9, The Hague: Mouton.

(18)

수	인칭	접두사	대명사	접미사
sg.	1	n-	ni	-da>-t
	2	h-	hi	*-ga > -a-
		Ø- y-	i yi	-k *-naga > -na-
	3	d-	bera hura haiek	I.O -o
		z-		-a
		Ø- [B.]		St. ²²⁾ -Ø
		b- h-		
pl.	2	z	zuek zu	-zu
			gu	-gu
	1	g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이 비록 이렇다 할 확실한 과학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위에서 살펴 본 견해보다는, 차라리 다음의 도표 (19)와 같은 가설에 입각하여, 분석을 하고 내적 재구형의 도출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바는, 공식적으로 바스크어의 접두사 d-는 3인칭과 현재 시제를 동시에 유표하며, z- 또는 Ø-은 3인칭과 과거 시제를 동시에 유표한다고 보고, 이러한 접두사는 3인칭에서만 우연 발생하는 동사 범주의 유표 현상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19)

d-	현재 시제
z-, Ø-	과거 시제
l-	우연 발생적 형태
b-	3인칭 명령법 ; 접속법의 古語形

그러다 보면, 자연히 바스크어의 접두사는 本是 여전히 상관되는 동사 범주의 유

22) 타동사의 주어를 Comrie (1978: 329-94)의 견해를 좇아서 A로 표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논항 표시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St로 대체하기로 하며 자동사의 주어를 S로 표현하는 것도 일반적인 문장 표기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Si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표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3인칭을 표시하는 접두사의 역할은 1인칭과 2인칭의 접두사를 부가시킴으로써 유발되어, 인접한 음운의 영향에 의해 조건이 규정되는 연결 음운의 변화 때문에 빚어진 우연 발생적인 것으로 정의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접두사가 3인칭의 존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에 나타나는 1인칭이나 2인칭이 결여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오히려 적합할 것으로 간주하자는 뜻이다.

위와 같은 견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1) 1인칭과 2인칭의 접두사 그리고 3인칭 접미사와 대조를 이루어 3인칭 접두사의 형태에 있어서 변이형의 설명이 용이하게 된다.
- 2) 3인칭 접두사와 그것에 부합되는 동사 범주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3) 함께 일치하는 적절한 3인칭 명사구가 겹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문장 내의 어디엔가에는 숨어 있을 비한정 3인칭 명사구의 존재를 어두의 3인칭 접두사로써 설명할 수 있다.²³⁾
- 4)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3인칭의 직접목적어를 유표하는 것이 부당함을 설명하는 논거가 마련된다.²⁴⁾
- 5) 바스크어의 체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여 주는데 3인칭 주어와 3인칭의 직접목적어 모두가 동사의 활용에서 영형태에 의하여 표시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한편, 바스크어의 동사 분석에 있어서 흥미로운 현상을 보이면서도, 문헌의 연구에서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형태론과 통사론 측면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 점에 관하여는 바스크어의 受動態 變형을 다루는 이론이 퇴색한

23) 예를 들어 *diraki*(그것이 끓는다)와 *deutsat*(나는 그것을 잡는다) 같은 동사의 형태는 문장내의 어디엔가 숨어 있을 비한정 3인칭 명사구의 존재를 어두의 3인칭 접두사 *d-*로써 암시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그러한 어두 위치에는 1인칭이나 2인칭의 유표가 올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4) 상반된 예로서 *dut*(나는 그것을 ~한다)와 *nuen*(나는 그것을 ~하였다) 같은 형태는 1인칭 주어가 각각 접미사와 접두사로 유표되는 차이점을 보여 주는데,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그러한 형태상의 구별은 3인칭 직접 목적어가 유표되는 점에 있어서는 여하한 경우에서건 하등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zuen*(그는 그것을 ~하였다)와 같은 형태에서 접두사가 주어나 목적어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논쟁하는 것이 도대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요령부득이라는 사실을 잘 대변하여 주는 셈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접두사는 주어나 목적어 그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견해를 피력하게 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다. 바스크어 타동 구문의 본질이 수동태 이었다는 견해는 이미 학자들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며,²⁵⁾ 그 당시 대부분이 인정하던 이론이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구태의연한 수동 이론은 통사론 측면에서 거부된다. 그것은 바스크어가 다른 인구어와 같이 동일한 주어와 목적어의 통사체에 기반을 둔 것임을 논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논증된 바 있으므로 상술하지 않기로 한다.²⁶⁾ 다만, 이 논문에서는 단지 다음의 예시 (20)과 같은 동일한 뜻의 예문 비교를 살펴보면서 어떤 개체에 속성이나 특성을 부여하는 상태 서술은 구성 성분 aita-k egin-a나 egin-dakoa에 da가 결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20) (ㄱ) Etxe hori aita-k egin-a d- a.²⁷⁾
 집 저 아버지-가 만들(다)-ㄴ(것) 그것은-이다
 “저 집은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지어졌다.”
 (ㄴ) Etxe hori aita-k egin-dako - a d- a.
 만들어-지(다)-ㄴ 그것은-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능격 접미사 -k의 존재 설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며, 바스크어 사용자의 언어 직관 내지는 세계관에 보다 더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을 일명 反수동이라는 용어로도 일컫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재귀 및 상호 대명사와도 연관된다. 한편, 방언에서는 bere burua(자기 자신의 머리)를 재귀 대명사로 사용한다. 그렇지만 이처럼 상호 대명사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25) H. Gavel (1930) “Quelques observations sur la passivité du verbe basque” in *Revista Internacional de los Estudios Vascos* 21(1930), pp.1-14.

R. Lafon (1980) *Le Système du Verbe Basque au Seizième Siècle*. [reprint (1st edition in 1943)], Bordeaux: Delmas, pp.15-6.

26) R. L. Trask (1977) “Historical Syntax and Basque Verbal Morphology: Two Hypotheses” in W. A. Douglass (eds.) (1977) *Anglo-American Contributions to Basque Studies: Essays in honor of Jon Bilbao*, Reno: University of Nevada Desert Research Institute, pp.203-17.

27) 이 문장을 英文 註釋으로 분석하여 보면, “That house is father-built.”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a (그는/그녀는/그것은 ~이다)

egin (창조하다, 만들다, 하다, 짓다, 달성하다)

egin-a (명사 — 행위, 일, 행동, 작전; 형용사 — 만든, 이루어진)

egin-dako-a (형용사 — 만든, 인위적인, 지어진, 건축된)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방언에서는 다음의 예문 (21)에서처럼 명사구 *elkar*(서로)가 상호 대명사로 사용된다.

- (21) *Elkar ikusi-ko d- u- gu.*
 서로 보(다)-ㄴ 그것을-하다-우리는
 “우리는 서로 볼/만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남부 지역의 방언에서는 이러한 표현 대신에 다음의 예문 (22)와 같은 문장을 동일한 뜻으로 사용한다.

- (22) *Ikusi-ko g- a- ra.*
 보(다)-ㄴ 우리는-(현재)-이다(*izan*)
 “우리가 보게/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또 한편으로는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半수동이라는 용어로 분류되기도 하였다.²⁸⁾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문 (23)을 선호하는 경향에 편승하여 널리 전파된 용례이다.

- (23) *Norbait-ek ikusi-ko ga- it- u- ∅.*²⁹⁾
 어떤 사람-이 보(다)-ㄴ 우리-들을-하다-(그는)
 “어떤 사람이 우리들을 볼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상호 대명사의 규칙을 제정하기 좋아하는 학자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확고하게 자리가 잡힌 용법인 점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바스크어에서 일어난 주요한 언어 변화 현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새로운 구성이 그 자체의 의미 범위를 확장시켜 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

28) 예문 (22)는 “우리가 보게/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바스크어에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표현이다.

J. Bollenbacher (1977) “The Basque Passive” in W. A. Douglass (eds.) (1977) *op. cit.*, pp.181-92.

29) *ga - it - u* (가능하게 되다, 가능하다, 준비하다)

러므로 예를 들어, 다음의 예시 (24)와 같은 표현이 다양한 의미로도 해석되는 점이 바스크어의 난해성을 보여 주는 특성이다.

- (24) Konpondu -ko g- a- ra.³⁰⁾
 고치(다)-르 우리는-(현재)-이다(izan)
 “우리는 (서로) 고칠/준비할/해결할/다를 것이다.”

이외에도 바스크어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하여 있지만, 이 논문의 논지 범위 밖이므로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기로 한다.

6. 어근 분절의 존재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바스크어 조동사의 다양한 형태가 izan이나 ukan의 어휘 어근에 상응하는 몇 가지 분절을 포함하는가를 조사하는 작업은 형태론을 기술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선제조건이다. 보조 형태가 어떠한 어원으로부터 어떻게 파생되었는가에 관하여는 그러한 어휘 파생이 시작되는 과정을 먼저 고려하지 아니하고는 원만한 논지 전개가 불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입장에 걸맞도록 하기 위하여는 경험적인 구조주의에 입각하여 D'Echepare 나 Leizarraga의 문헌을 예증 비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³¹⁾ 이 연구에서는 애당초 친명한 대로 언어 사실을 지향하는 보편적 규칙을 도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문헌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추론이 가능한 모형 탐색에 노력을 경주한다. 이렇게 논점을 제기하는 방식은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술 모형이 한꺼번에 고려 대상으로 채택되지 아니한다면 납득이 가는 합리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수가 없다.

上述한 보조 형태의 형태론을 다루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채택하는 기술 모형은 Echaide의 바스크어 동사 활용형 사전에서 범언어학적인 等值 연구에 제시된 단어

30) konpondu (타동사 — 고치다, 조정하다, 해결하다, 수선하다, 정착시키다
 자동사 — ~와 (잘) 지내다, ~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관리하다)

31) D' Echepare, *op. cit.*

I. Leizarraga (1990) *Testamentu Berria, Kalendrera Abc* (Baskische Bücher von 1571), Bilbao: Euskaltzaindia.

와 어형 변화의 계열을 참조한다.³²⁾ 이렇게 연구 범위를 제한하다 보면, 보조 형태나 첨사 순서가 바스크어 보조 동사의 범주를 특징지워 주는 기본적인 정의에로만 논지를 국한시킬 수가 있다.

언어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면, 고정적으로 세목화된 짜임새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으로는 시제와 양상류를 유표하는 요소만을 가질 수 있는 구성 성분은 구별되지 아니하는, 곧, 그것의 자질이 변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시제나 양상류의 유표 사실에 덧붙여서 조동사의 범주는 몇 가지 독특한 구성소가 유표될 수 있는 특성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조동사는 구성 성분인면서 세목화된 짜임새를 가지며 그러한 모양새는 조동사를 구성하는 성분 내에 확정된 순서에 따라 형성된다. 아울러 주어 표지 및 일치, 목적어 표지 및 일치, 부정, 의문, 강조, 상 유표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자격 요건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이미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바스크어의 조동사에 관한 연구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는 보조 형태의 대부분이 ukan이나 izan의 어휘 어근을 포함하고 보조 형태의 다양한 첨사가 형태 및 통사 범주와 일단은 일대일의 대응 관계에 있으며,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오래 전부터 보조 형태가 안정된 발달 추세를 유지함으로써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간주하는 정태적인 연구 가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논문의 확실한 논지가 정립되기 위하여는 위에 기술한 동사가 본동사인가 조동사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냐의 본질론 문제부터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부재 현상의 극복

그런데,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바스크어 조동사의 어근과 연관될 수 있는 보조 형태에 분절 단락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면 보조 형태가 지닌 어휘 어근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실제의 언어 사실에서 어근 분절로 그것을 증명하기가 수월하지 아니한 때가 가끔 발생하는데, 다음의 예시 (25)나 (26)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스크어에 있어서 어근 분절의 부재 현상에 해당한다.

32) I. M. Echaide (1944) *op. cit.*

P. H. Matthews (1972) *Inflectional Linguistics: A Theoretical Study Based on Aspects of Latin Verb Conjug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 Nor-Nori-Nork: d - i - o - t

d	∅	∅	I	∅	o	∅	t	∅
D.O	D.O	stem	I.O	D.O	I.O	I.O	S.	S.
ABS	pl.		DAT	pl.	DAT	pl.	ERG	pl.
3p.			marker		3p.		1p.	
sg.					sg.		sg.	
그것을			~에		그에게		나는	
“나는 그에게/그를 위하여 그것을 ~한다.”								

(26) Nor-Nori: d - a - ki - da - n

d	a	ki	da	n
ABS	[-past]	DAT	DAT	[-Ind.]
3p.		marker	1p.	[+Subj.]
sg.			sg.	
그가	(현재)	~에	나에게	~일 터인데
“그가 나에게 ~일 터인데”				

이렇게 분석하면, 바스크어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 여격의 표지를 포함하는 직설법을 비롯하여 접속법 현재의 보조 형태에는 어근 분절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있다. 환언하면, 주변에 다른 침사가 분포될 수 있는 형태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보조 형태도 바스크어 동사의 활용형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바스크어 동사의 난해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예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휘 파생의 근원을 모색하려는 것이 이 논문에서 바스크어의 조동사를 영형태의 존재 가설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제안하는趣旨이다.

8. 영형태의 증식

위의 예시 (25)와 (26)을 周到綿密하게 살펴보면, 바스크어의 조동사 어근에 상응하는 명백한 분절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한 어근의 기능이 부족함을 보완하는 다른 분절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점에 착안하게 되면 바스크어에 있어서 영형태의 증식 현상을 다음의 도표 (27)과 같이 상정하여 볼 수 있다.³¹⁾

(27)

[1]	[2]	[3]	[4]	[5]	[6]	[7]	[8]	[9]	의미 분석
d	∅	u	∅	∅	∅	∅	∅	∅	: 그는 그것을 한다
d	∅	u	∅	∅	∅	∅	∅	te	: 그들은 그것을 한다
d	∅	∅	i	∅	o	∅	∅	te	: 그들은 그것을 그에게 한다
d	∅	∅	i	∅	o	∅	zu	∅	: 당신은 그것을 그를 위하여/ 그에게 한다
d	∅	∅	i	∅	o	∅	∅	zue	: 당신들은 그것을 그를 위하여/그에게 한다
d	∅	∅	i	∅	o	∅	∅	∅	: 그는 그것을 그에게 한다
d	it	u	∅	∅	∅	∅	∅	∅	: 그는 그것들을 한다
d	it	u	∅	∅	∅	∅	zu	∅	: 당신은 그것들을 한다
d	∅	∅	i	zki	o	∅	∅	∅	: 그는 그것들을 그에게 한다
d	∅	∅	i	zki	o	∅	∅	te	: 그들은 그것들을 그를 위하여/그에게 한다
d	∅	∅	i	zki	o	∅	zu	∅	: 당신은 그것들을 그를 위하여/그에게 한다
d	∅	∅	i	zki	∅	zue	∅	gu	: 우리는 그것들을 당신들에게/당신들을 위하여 한다
d	∅	∅	i	∅	zu	∅	t	∅	: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한다
d	∅	∅	i	∅	o	∅	∅	zue	: 당신들은 그것을 그를 위하여/그에게 한다
d	∅	∅	i	∅	da	∅	∅	te	: 그들은 그것을 나에게 한다

둘이켜 보면, 이 연구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준 분석의 중심 가설은 조동사

33) 바스크어 조동사의 융합 과정을 예시하는 도표를 간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형태소의 구별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 ① 직접 목적어 인칭 표지 (D.O)
- ② 직접 목적어 수 표지 (D.O pl.)
- ③ 어근 (stem)
- ④ 간접 목적어 표지 (I.O)
- ⑤ 직접 목적어 수 표지 (D.O pl.)
- ⑥ 간접 목적어 인칭 표지 (I.O)
- ⑦ 간접 목적어 수 표지 (I.O pl.)
- ⑧ 주어 인칭 표지 (S.)
- ⑨ 주어 수 표지 (S. pl.)

한편, 위의 도표의 내용을 원용하면 다음 몇 가지 예문을 이해하기 편리하여진다.

Liburuak utziko d-i-zki-zue-gu. (우리가 너희에게 책을 남기겠다.)
 Eskatu d-i-zki-o heun pezeta. (그가 그에게 백 빼세파를 요청했다.)
 Boligrafoa emango d-i-zu-t. (내가 너에게 볼펜을 주겠다.)
 Xoriari kendu d-i-o-zue habia. (너희가 새집을 빼앗았다.)
 Baserria saldu d-i-da-te. (그들이 나에게 저택을 팔았다.)

어근의 좌 우측에 시제, 인칭, 격, 수, 서법, 양상류, 성, 형식성 등을 표시하는 다양한 분절이 접사로 부가된다고 보았다. 물론, 여기에는 변이형태소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근뿐만 아니라 어휘 파생의 동질성 확인이 가능한 분절로 볼 수 있는 형태소도 선형 구조로 순서를 매김하고 다른 것에 연쇄된 불연속 요소로 해석하면, 분절과 형태 및 통사 범주는 一貫하더라도 일대일의 상응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형태 및 통사 범주 자체는 바스크어 조동사의 형태를 도출하는 시도를 위한 구조 분석에서 검토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의 도식 (28)에서 보듯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질 수가 있다.³⁴⁾ 이것이 바로 바스크어의 보조 형태를 분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고려 사항을 제안하되, 어근 분절의 부재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이 연구의 파급 효용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상 검토하여 보았듯이, 이러한 유형의 기술 방식은 몇 가지 형태 및 통사 범주의 변이형태소인 영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28)

	절대격 인칭	[-과거]시제	절대격 수	어근	능격 인칭	능격 수
ㄱ	d-(3p. sg.)	- $\emptyset$ -	- $\emptyset$ -(sg.)	-u-	- $\emptyset$ -(3p.)	- $\emptyset$ (sg.)
ㄴ	d-(3p. pl.)	- $\emptyset$ -	-it- (pl.)	-u-	- $\emptyset$ -(3p.)	-z-te(pl.)
ㄷ	n-(1p. sg.)	-a-	- $\emptyset$ -(sg.)	-u-	- $\emptyset$ -(3p.)	- $\emptyset$ (sg.)
ㄹ	g-(1p. pl.)	-a-	-it- (pl.)	-u-	- $\emptyset$ -(3p.)	-z-te(pl.)

이미 앞에서 영형태의 사용에 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 이러한 영 형태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형태의 사용은 형태소 분절의 비례 대칭 구조에서 어디엔가는 숨어 있을 요소를 가정하는 형태론 모형과도 비견될

34) 논지를 명료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예이기는 하지만, 도식 (28)에서 실험적으로 해체하여 본 첨사의 순서는 각각 다음과 같다.

(28, ㄱ) d-u (그는 그것을 ~한다)

(28, ㄴ) d-it-u-z-te (그들은 그(것)들을 ~한다)

(28, ㄷ) n-a-u (그는 나를 ~한다)

(28, ㄹ) g-a-it-u-z-te (그들은 우리들을 ~한다)

여기에서 분절 -zte를 -z-te로 한 단계 더 분리하여 본 것은 형태소 -z-가 원래는 2인칭능격/여격의 복수 격식성과 관련이 있지만 -te가 능격/절대격의 3/2인칭 복수를 지칭하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한 절대격 인칭의 첨사를 유표하는 명백한 복수의 분절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복수와 유사한 상대 요소가 있다면, 절대격 인칭 첨사의 단수 형태를 지적하기 위한 영형태를 공준으로 가상적인 설정을 하여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단수 형태소를 유표하기 위한 영형태의 설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앞의 예시 (28, ㄷ)과 (28, ㄹ)에서 보듯이, 단어 형태를 변화시킬 때에 굴절어미의 접사나 모음변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3인칭이 아닌 인칭의 다른 단어 형태를 가지고 보충 교체함으로써, 같은 형태소에 다양한 변이형태가 출현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수를 유표하는 언어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래 해당하는 인칭이 아닌, 즉, 3인칭이 아닌 것으로부터 증거를 추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엄격하게 바스크어 조동사의 활용 형태를 규정하려면, 예시 (28, ㄷ)과 (28, ㄹ)에서 형태소 n -은 1인칭 단수를, 그리고 형태소 g -는 1인칭 복수를 지칭하는 구성 요소로 해체 분석되어야 합리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경험적으로 구성된 구조 분석에 지나지는 않지만, 형태소가 가장 많은 형태와 가장 적은 것을 서로 견주어 보면, 설령 그것이 보충 교체에 의한 형태의 변화일지라도 영형태의 상대적인 증식 현상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예시 (28, ㄹ)에서도 보듯이, 절대격 3인칭이 아닌 복수 첨사가 여러 번 복수를 유표하는 언어 사실에 반하여, 예시 (28, ㄷ)에서 단수 첨사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속성을 지니지 아니한다. 이러한 언어 사실을 참작한다면, 이보다 더 복합적인 형성소 구성도 충분히 판별이 가능하여지고, 또, 것처럼 복잡한 형태와 연관된 인칭 변화의 형태에서도 대립된 숨어 있을 요소를 영형태로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예시 (28, ㄷ)의 n -이 단수를 유표하기 위한 영형태를 가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시 (28, ㄹ)에 존재하는 복수 표지인 $-it$ -가 결여되어 있음을 유표하는 것은 비록 단수가 지니지 아니하는 속성이기는 하지만, 마치 여러 차례 유표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예시 (28, ㄹ)에서처럼 3인칭이 아닌 절대격 복수와 함께 하는 보조 형태의 경우와 흡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이 논문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바스크어 조동사의 분석 방법을 원용함으로써 형태 및 통사 분해에 의하여 추출 가능한 영형태의 증식 현상을 판별하는 효용성이다. 이와 같은 바스크어의 특성에 부연하기 위하여 한 가지 좀 더 복잡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의 예시 (29)와 같이 복수와 단수의 형태소 대립을 도표로 만들어 볼 수 있다.³⁵⁾ 이 도표에서 영형태의 증식 가능성을 가늠할

35) 도식 (29)에서 실험적으로 해체하여 본 첨사 순서는 각각 다음과 같다.

수 있다. 이 때에 한 가지 예를 들어, 예시 (29, ㄴ)에서 h-a-u의 형태 분석을 위하여는 서로 다른 형태 가치를 지닌 영형태의 혼합체라는 가정을 필요로 함을 알 수가 있다.

(29)

	절대격	[-과거]	절대격	어근	절대격	절대격	능격	능격
ㄱ	z- 2p. pl.	-a-	-it- pl.	-u-	-z- pl.	-te- pl.	-∅- 3p.	-te pl.
ㄴ	h- 2p. sg.	-a-	-∅- sg.	-u	-∅- sg.	-∅- sg.	-∅- 3p.	-∅ sg.
	Nor	시제	●		●	●	●	●

위의 도표 (29)에서 ●●●의 단수-절대격을 표시하는 영형태는 단수를 지칭하고, ●의 3인칭-단수-능격을 표상하는 영형태는 능격 인칭의 첨사이다. 이러한 능격 3인칭의 첨사만을 좀 더 확대시켜 보면, 수라는 것은 인칭과 격을 동시에 유표하지 아니한다. 여기의 능격 3인칭을 위한 복수 유표의 표지는 당연히 -te이다. 예시 (29, ㄱ)에서 복수 분절 -te가 결여된 것이 단수를 유표하고 그러한 결여가 형태론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면, (29, ㄴ)의 3인칭을 위한 단수 분절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영형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이 된다. 이것에 준하여 형태 및 통사 표시를 보다 정밀하게 만들어 본 결과가 예시 (29, ㄴ)에 해당한다. 첨사 ●는 능격과 3인칭을, 또 첨사 ●는 단수를 유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단수를 유표하는 영형태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인칭과 격 첨사를 위한 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상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바스크어 조동사의 변화형 분석에 있어서 영 형태의 증식 현상이 형태소와 분절의 비례 대칭 구조처럼 어떤 것을 본뜨는 연쇄 열로 형태소를 간주하는 분석 방식에서, 설령 그것이 보충 교체에 의한 분해에 관련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래부터 타고난 고유의 속성인 것만은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명백

(29, ㄱ) z-a-it-u-z-te-te (그들이 당신들을 ~한다)

(29, ㄴ) h-a-u (그가 당신을 ~한다)

여기에서 (29, ㄱ)을 예시하는 이유는 이것이 z-a-it-u-z-te(그가 당신들을 ~한다)보다 한 단계 더 형태소 부가 현상이 있는 변화형이므로, 최대한으로 영형태를 상정하는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논지 전개의 간결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채택한 것임을 밝혀 둔다

한 형태의 변화에 의하여 유표되지 아니한 형태 및 통사 범주의 수, 특히 단수는 영 형태와 연관시킬 필요가 없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이 연구의 입장은 지금까지 언급한 조동사 변화형의 형성소가 융합의 상당한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태소 개념이 다른 용어로 다시 표현된다면, 더 나아가서 바스크어 보조 형태의 형태론적 특성을 보다 더 적절하게 영형태의 증식 가설에 입각하여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가설의 입증 및 그 한계점

이상 앞에서는 조동사의 특질 포착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언어로 판단되는 바스크어의 보조 형태에 접근하는 방식을 점검하여 보았으며, 조동사의 어휘 어근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를 들어 그것을 규명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검증하면서 바스크어 조동사의 형태론 분석에 의한 결과를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은 실험 삼아 분해하여 본 침사 순서의 분석에서도 일별하여 보았듯이, 보조 형태 내의 분절은 보조 형태에 표현된 형태 및 통사 범주를 완전히 수용하는 정도까지는 못 미친다는 점이다. 이것이 분절 부재의 현상에 해당되며, 그 어디엔가는 반드시 숨어 있다고 간주하는 요소인 영형태의 존재를 가정하여 보거나 보충 교체로 해석하려는 동기이다. 따라서, 바스크어에 있어서 보조 형태의 형성소는 형태 및 통사 속성과 일대일의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대다수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형태와 의미의 조합 단위로 이해되는 형태소인 침사의 순서에는 그 자체 안에 모든 다른 형태소와 간접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일반 조건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침사 순서가 전체로서 채택된다면, 개별적인 형성소는 동질성을 확인 증명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형성소 *z-*는 오로지 인칭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가 아니하다.

또한, 실제로 언어 사실에 주저 현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형성소 *z-*가 인칭 접두사로 간주되기는 하되, 2인칭이나 3인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동적이다. 2인칭 유표의 경우는 대명사 *zu*(당신)로부터 어휘 파생된 것이며, 3인칭 유표의 경우는 접두사가 없는 과거 형태 *zan*(그는 ~이었다)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³⁶⁾ 이러

36) R. Lafon (1980), *op. cit.*, pp.373-87.

한 형태 *zan*은 *z-an*으로 해석되었고, 3인칭 유표는 유추된 확산 전파로 본다.³⁷⁾ 따라서, 형성소 *z-*를 단순히 인칭만을 유표하는 개별적인 기능 단위로 간주하여서는 안되며, 과거 시제를 유표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뒷받침하여 주는 예로는 *z-etorren*(그가 왔다), *z-egoen*(그가 세웠다), *z-ihoan*(그가 갔다) 등과 같은 통사상의 본동사 변화형이 있다. 비스카야 지역 방언에 3인칭을 유표하는 영형태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는 *z-aitu*(그가 당신을 ~한다)의 *z-*가 현재-절대적-2인칭을 지칭하는 것에 반하여, *z-uen*(그가 ~하였다)에서의 *z-*는 과거-능격-3인칭을 유표한다는 사실을 거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침사의 복합체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침사는 별개의 기능 부분, 즉, 하나의 형태 및 통사 속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타당하지 않으며, 침사 복합체의 형태 및 통사 특성은 전체로서 침사 복합체마다의 특성인 것으로 한꺼번에 파악하여야 합리적이다. 그러한 특성의 군집성이 바로 바스크어에 특유한 보조 형태의 기반을 형성한다고 확신한다. 아울러서 이러한 관점을 원용하면, 바스크어 보조 형태의 형성소는 형태 및 통사 속성과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지닌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논지를 전개하였지만, 그러한 가정이 모순된 것임을 검증하면서, 결국에는 일대다수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밝혀 낼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바스크어에 관련된 기존의 교착 및 SOV 유형론에 입각한 견해를 비판하고, 바스크어의 조동사가 융합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이 연구의 논거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결론

以上 이 논문에서는 공식적으로 바스크어의 접두사 *d-*는 3인칭과 현재 시제를 유표하며, *z-*나 $\emptyset$ -은 3인칭과 과거 시제를 유표한다고 간주하고, 이러한 접두사는 3인칭에서만 우연히 발생하는 동사 범주의 유표 현상으로 지적하였으며, 바스크어의 접두사는 상관되는 동사 범주의 유표인데, 3인칭을 유표하는 접두사의 역할은 1/2인칭의 접두사를 부가시킴으로써 유발되고, 연결 음운의 변화 때문에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또한, 접두사가 3인칭을 유표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의 위치에서 표시되는 1/2인칭의 결여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연

37) *ibid.*, pp.381-83.

구에서 절대적 인칭의 침사를 유표하는 복수의 분절, 또는, 복수와 유사한 상대적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절대적 인칭 침사의 단수 형태를 지적하기 위한 영형태를 바스크어의 조동사 분석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가상적인 공준으로 설정하여 보려는 가설 설정의 노력과 상통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바스크어의 보조 형태가 융합의 특이성을 지닌 침사의 복합체로 간주되므로, 형태소와 형성소 사이의 상용관계를 유지하도록 형태 변화에 논거를 둔 영형태를 공준으로 설정하였다. 그것을 어딘가에는 숨어 있을 형태소를 분석하는 데에도 개입시키는 것이 영형태의 증식 현상을 비롯하여, 보충 교체에 의한 결과인 형태 및 의미의 형성 과정에서 어근 분절의 부재 현상을 극복하면서 분석하기에도 적절하다고 보았다. 분해한 침사 순서의 분석에서 보조 형태 내의 분절은 보조 형태에 표현된 형태 및 통사 범주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절의 부재 현상에서 어디엔가는 숨어 있을 요소의 존재를 가정하여 보거나 보충 교체의 현상으로 해석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바스크어 보조 형태의 형성소는 형태 및 통사 속성과 일대일의 상용 관계를 지닌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논지를 전개하였지만, 그러한 가정이 모순됨을 검증하면서, 결국에는 일대다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으로써 기존의 교착 견해를 비판하고 융합 논거를 입증할 수 있었다. 형태와 의미의 조합 단위로 이해되는 형태소인 침사의 순서에는 다른 형태소와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일반 조건이 내재하므로, 침사의 순서가 전체로서 채택된다면 개별 형성소는 동질성을 확인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과 그 침사의 복합체에 존재하는 침사는 별개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은 형태나 통사의 속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타당하지 아니하며, 전체 침사 복합체의 특성으로 한꺼번에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특성의 군집성이 바스크어에 특유한 보조 형태의 기반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실제로 바스크어의 언어 사실에서는 주저 현상이 발견되므로, 형성소 z -가 인칭 접두사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2인칭에 해당하기도 하고 3인칭에 해당하기도 한다. 유추에 의하여 확산 전파된 형성소인 z -를 단순히 인칭만을 유표하는 개별적인 기능 단위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이 과거 시제도 유표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필자의 역부족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 현재 시제의 형태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종합 동사인 joan의 변화형으로서의 noa- z

나 *hoa-z*의 복수 표지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또, 확산되었는가의 본질을 규명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동사의 두 가지 종류의 구별에 따른 상을 분석하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친숙한 사이에 *hika*나 *hiketa*를 사용하고 동물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면서 *zu*를 사용하는 사회 언어학적 문제와 우연 발생적인 변화형에 존재하는 형태소의 문제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Alli es, J. (1977), *Les Basqu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Anderson, S. R. (1992), *A-Morphous Morp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ttila, R. (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 Bach E. & R. T. Harms (eds.) (1968),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ilbao Azkarreta, Y. (1982), "Sobre la Leyenda de Jaun Zuria, Primer Señor de Vizcaya" separada del libro *Amigos del País, Hoy (Adiskideen Elkarte, Gaur)* Tomo I. Bilbao: RSBAP, pp. 237-263.
- Blake, B. J. (1976), "On Ergativity and the Notion of Subject: Some Australian Cases" in *Lingua* 39, pp. 281-300.
- Bollenbacher, J. (1977), "The Basque Passive" in W. A. Douglass (eds.) (1977), pp. 181 - 192.
- Caro Baroja, J. (1984), *Los Vascos*, Madrid: Istmo.
- _____ (1988), *Los Vascos y el Mar*, Donostia: Txertoa.
- Charpentier, L. (1975), *Le Mystère Basque*, Paris: Éditions Robert Lafont.
- Ciriquiain Gaiztarro, M. (1961), *Los vascos en la pesca de la ballena*. San Sebastián: Ediciones Vascas.
- Comrie, B. (1978), "Ergativity" in W. P. Lehmann (ed.) (1978), pp. 329-394.
- _____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Oxford: Basil Blackwell.
- D'Echepare, M. B. (1959), *Linguae Vasconum Primitiae*. Olerkiak. in Fr. Ignacio Omaechevarria O.F.M, pp. 155-169. El primer libro impreso en euskera (año 1545) *Linguae Vasconum Primitiae per Dominum Bernardum Dechepare Rectorem fanctimichaelis veteris*; Reproducción facsímil del único ejemplar que se conoce de la edición príncipe, hoy en la Biblioteca Nacional de París : con una introducción

- bio-bibliográfica sobre Bernat D'Echepare por Nicolás de Alzola Guerediaga, y la primera versión castellana, debida a Lino de Aquesolo Y Olivares: edición (1966) separada de *La Gran Enciclopedia Vasca*, Bilbao: Moderna.
- Douglass, W. A. (eds.) (1977), *Anglo-American Contributions to Basque Studies: Essays in honor of Jon Bilbao*, Reno: University of Nevada Desert Research Institute.
- Echaide, I. M. (1944), *Desarrollo de las Conjugaciones Euskaras: Perifrásticas y Sintéticas/ Respetuosas y Familiares*, Donostia: Grafico.
- Estornes Lasa, J. (1961), *Método Elemental de Vasco*, Zarauz: Editorial Itxaropena.
- Euskaltzaindia (1982), *Euskera*, Donostia: Sendoa.
- Fisiak, J. (ed.) (1984), *Historical Syntax*, Berlin: Mouton.
- Gavel, H. (1930), "Quelques observations sur la passivité du verbe basque" in *Revista Internacional de los Estudios Vascos* 21 (1930), pp. 1-14.
- Gereño, X. (1976), *Método de euskara*, Bilbao: Cinsa.
- Granda, Germ de (1988), *Lingüística e Historia*, Valladolid: Universidad de Valladolid.
- Greenberg, J. H. (1966),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in Greenberg (ed.), *Universals of Language*. 2nd edition, Cambridge (Mass)The MIT Press.
- Harris, M. & P. Ramat (1987), *Historical Development of Auxiliaries*. Berlin: New York; Amsterdam: Mouton de Gruyter.
- Heath, J. G. (1977), "Remarks on Basque Verbal Morphology" in W. A. Douglass (eds.) (1977), pp. 193-201.
- _____ (1979), "The Role of Basque in Modern Linguistic Theory" in *Euskaltzaindiak Argitaratu Emandako "Euskalariari Nazioarteko Jardunaldien" Liburutik Separata*, Iruñea: Aranzadi.
- Hock, H. H. (1991),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2nd revised & updated edi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 Hockett, C. H. (1947), "Problems in Morphemic Analysis" in M. Joos (ed.)

- (1957), pp. 236-237.
- _____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 Houghton, H. P. (1944), *The Basque Verb*, Northfield (Minnesota): Mohn Printing.
- Jeffers, R. J. & I. Lehiste (1979),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Joos, M. (ed.) (1957), *Readings in Linguistics I*,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Juan Atucha, S. J. (1977), *Gramática Teórico-Práctica del Euskera*, Bilbao: La Gran Enciclopedia Vasca.
- Keiler, A. R. (ed.) (1972), *A Reader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 Holt.
- Kintana, X. & J. Tobar (1977), *Diccionario moderno vasco-español y español-vasco*, Bilbao: Editorial Cinsa.
- Lafitte, P. (1979), *Grammaire Basque* (third edition) [1st edition in 1944], Bayonne: Ika.
- Lafon, R. (1952), *Etudes basques et caucasiques*, Salamanca: Acta Salmaticensia.
- _____ (1972), "Basque" in T. A. Sebeok (ed.) (1972), pp. 1744-1792.
- _____ (1980), *Le Système du Verbe Basque au Seizième Siècle* [reprint (1st edition in 1943)], Bordeaux: Delmas.
- Langendoen, D. T. (1968), *The London School of Linguistics: A Study of the Linguistic Theories of B. Malinowski and J. R. Firth*,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Lehmann, W. P. (1962), *Historical Linguistics: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in 1973], New York: Holt.
- _____ (ed.) (1978), *Syntactic Typology: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Language*, Austin & London: University of Texas Press.
- Leizarraga, I. (1990), *Testamentu Berria, Kalendrera Abc* (Baskische Bücher von 1571), Bilbao: Euskaltzaindia.

- Li, C. N. (1976),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Lockwood, W. B. (1969), *Indo-European Philology*, London: Hutchinson.
- María de Azkue, R. (1984), *Diccionario vasco-español-francés*. 2 tomos [1st edition in 1906], Bilbao: Euskaltzaindia.
- María Lacarra, J. (1957), *Vasconia Medieval: Historia y Filología*, San Sebastián: Publicaciones del Seminario Julio de Urquijo.
- Maria Mugica, L. (1978), *Origen y Desarrollo de la Sufijación Euskérica*. Bilbao: Ediciones Vascas.
- Matthews, P. H. (1972), *Inflectional Linguistics: A Theoretical Study Based on Aspects of Latin Verb Conjug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79), *Morphology: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Word-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y, R. & J. Koster (eds.) (1981), *Levels of Syntactic Representation*, Dordrecht: Foris.
- Melena, J. L. (ed.) (1985), *Symbolae. Ludovico Mitxelena septuagenario oblatae*. 2 vols, Gasteiz: Victoriaco Vasconvm.
- Menéndez Pidal, R. (1962), *En torno a la lengua vasca*, Buenos Aires: Colección Austral.
- Michelena, L. (1960), *Historia de la literatura vasca*, Madrid: Ediciones Minotauro.
- _____ (1961), *Fonética Histórica Vasca*, San Sebastián : ASJU.
- _____ (1963), *Lenguas y protolenguas*, Salamanca: Talleres Gráficos Cervantes.
- _____ (1977), *La lengua vasca*, Bilbao: Editorial Vizcaína.
- _____ (1989), *Apellidos Vascos* (4th edition), San Sebastián: Txertoa.
- Miguel de Barandiarán, J. (1972), *Diccionario ilustrado de mitología vasca*. Obras completas. Tomo 1, Bilbao: Editorial La Gran Enciclopedia Vasca.
- _____ (1988), *Mitología Vasca* (7th edition) [1st edition in 1959], Donostia: Txertoa.

- Mokoroa, J. (1971), *Lengua vasca de hoy y de mañana*, San Sebastián: Editorial Auñamendi.
- Moulton, W. G. (1967), "Types of phonemic changes" in *To Honor Roman Jakobson: Essays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The Hague: Mouton.
- Omaechevarria, I. (1959), *Euskera*, Zarauz: Icharopena.
- Ortiz de Urbina, J. (1989), *Parameters in the Grammar of Basque*, Dordrecht: Foris.
- Pierre Lhande, S. J. (1971), *La Emigración Vasca* [1st edition in 1910], San Sebastián: Auñamendi.
- Plank, F. (ed.) (1979), *Ergativity: Towards a Theory of Grammatical Relations*, London; New York; Toronto; Sydney; San Francisco: Academic Press.
- Revista Internacional de los Estudios Vascos* 21 (1971) [reedition (1st edition in 1930)], Bilbao: Biblioteca de la Gran Enciclopedia Vasca.
- Ross, J. R. (1967), "Auxiliaries as Main Verbs" in W. Todd (ed.) (1969), pp. 77-102.
- Rotaetxe, K. (1978), *Estudio Estructural del Euskara de Ondárroa*, Durango (Vizcaya): Leopoldo Zugaza.
- Schuchardt, H. (1947), *Primitiae Linguae Vasconum. Einführung ins Baskische*. (1923) Halle(Saale). Verlag von Max Niemeyer. versión española con notas y comentarios de la original alemana por A. Yrigaray, Salamanca: Colegio Trilingüe de la Universidad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 Sebeok, T. A. (ed.) (1972),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9, The Hague: Mouton.
- Steele, S. (1981), *An Encyclopedia of AUX: A Study in Cross-Linguistic Equivalenc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Tovar, A. (1954), *La Lengua Vasca* (2nd edition), San Sebastián: Biblioteca Vascongada de los Amigos del País.
- _____ (1959), *El euskera y sus parientes*, Madrid: Ediciones Minotauro.

- _____ (1980), *Mitología e ideología sobre la lengua vasca*, Madrid: Alianza.
- Trask, R. L. (1977), "Historical Syntax and Basque Verbal Morphology: Two Hypotheses" in W. A. Douglass (eds.) (1977), pp. 203-217.
- _____ (1979), "On the Origins of Ergativity" in F. Plank (ed.) (1979), pp. 385-404.
- Villasante, L. (1974), *Palabras vascas compuestas y derivadas*, Oñate: Editorial Franciscana Aránzazu.
- Wilbur, T. H. (1979), *Prolegomena to a Grammar of Basque*, Amsterdam: John Benjamins.
- Yrizar, P. de (1981), *Contribución a la Dialectología de la Lengua Vasca*. Tomo I & II, Zarautz: Itxaropena.

Hypothesis on the proliferation of zero morpheme in the Basque auxiliary verb conjugation

Hyung-nam, No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 proposal for the rationalizing a hypothesis on the proliferation of zero morpheme in an effort to verify the details of universal validity within the limits of grammatical categories, singling out several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assumptions for the analysis by means of the Basque auxiliary verb conjugation, concerning the morpho-syntactic fusion complexity represented with various particles and formatives which show unique idiosyncrasy of distinctive properties of the Basque auxiliary verbs, especially in the case of Nor-Nork and Nor-Nori-Nork form of the auxiliary verb, investigating the relation between underlying argument structure and auxiliary form of the Unified Basque (Euskara Batua) simple sentence.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underlying argument structure projects to the auxiliary verb form formation and how it contains morphemic particle sequence in the exclusively postpositional Basque language, in which the incorporation of suggested postpositional particles and formatives into auxiliary verb forms would be well attested according to several ad hoc rules of this study from transformational generative viewpoint.

To evit ignotum per ignotius or ignoratio elenchi I have restricted myself to a few examples for the sake of descriptive simplicity and explicit convenience, making such ad hoc rules to make generalization on the assumption that the existence of underlying morphosyntactic structure would be a clue to solve sever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synchronic analysis, discussing the

obligatorily necessary items — making some composite proposals — for the syntactic analysis of the Basque auxiliary verbs, that would be capable of interlinking to the marginal utility of synchronic analysis.

I can summarize this study, and present some implications, expatiating on the subject of this study, one of which is tenable to make use of grid-diagram in process of searching examination about the atomic fusion complexity of the Basque auxiliary verbs, rationalizing the hypothesis on the proliferation of zero morpheme in the Basque auxiliary verb conjugation.